

‘광주형 일자리’ 좌초하나

한국노총, 박광태 대표 등 교체 안하자 협약 파기 선언 예고
광주시 “노동계에 매우 유감 ... 빠른 시일 내 입장 밝히겠다”

대한민국 첫 노사상생형 일자리로 주목 받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노동계의 ‘협약파기 선언 예고’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노동계는 앞서 최근 청와대와 광주시에 ‘광주형 일자리 신설 법인 박광태 대표 등 임원 3명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 지지 않자 ‘협약파기’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계가 이례적으로 파기에정 사실을 먼저 알렸다는 점에서, 정식 파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정부와 광주시, 현대차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1일 ‘더 이상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는 없다’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를 선언했던 광주지역분부가 조만간 광주형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끝없는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자신의 욕심과 무능한 행정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1월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 이후 진행된 과정들은 노동배제와 희생만을 강요한 여론몰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상생형 일자리의 기본원칙인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 상생방안, 노사책임경영을 요구했지만, 끝내 돌아온 대답은 ‘노동계의 헌신적 결단’이었다”며 “결국 노동계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지역 하청 공장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협약 파기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노총의 보이콧 결정으로 지난해 1월 광주시와 현대차, 한국노총 광주지역 본부가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 상생방안, 노사책임경영 등 4대 원칙으로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방향성을 잃게 됐다.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데, 현대차측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사책임경영 부분 등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9월부터 광주시와 합작법인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에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시스템 구축, 임원 임금 노동자 2배 이내 책정, 현대차 추천이사 경질,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등도 요구하고 있지만, 단 하나도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기본 정신인 ‘노사상생의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무시하

고 공장 짓기에만 몰두해온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빠질 경우 노사상생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시와 현대차가 설립하는 자동차공장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사업이 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날 한국노총의 성명 발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광주시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달 30일 공사 부지인 광주 빛그린 산단에서 가진 현장 설명회에서 현재 공정률이 8.1%를 기록해 목표치(7.8%)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뒤 터파기와 기초 타설 공사를 마쳤으며, 현재 철골 구조물 설치, 도로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후 일정으로는 오는 9월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내년 2월 시운전, 4월 완공에 이어 시험생산을 거쳐 내년 9월 완성차 양산 계획을 내놨다.

광주형 일자리는 빛그린 산단 60만 4000㎡(연면적 10만9000㎡) 부지에 연건 강형 SUV 10만대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 사업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 1대 주주는 484억원(21%)을 투자한 (재)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시)이며, 2대주주는 437억원(19%)을 출자한 현대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당 “18개 선거구 모두 우세” 민생당 “우세 1·경합 4·추격 2”



“선거 벽보 나왔어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14일 앞둔 1일,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북구갑과 북구를 선거구 후보자들의 벽보를 펼쳐놓고 검수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총선 D-13
각당이 본 광주·전남 판세

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전반적인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국면속에서 민생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전을 펼치고 있는 양상이다.

1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광주·전남지역 18곳의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광주·전남 전체 석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동남갑(윤영덕), 동남을(이병훈), 서구갑(송갑석), 서구를(양향자), 북구를(이형석), 광산갑(이용빈), 광산을(민형배) 등 7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크게 앞서고 있고 북구갑(조오섭)도 점차 무소속 김경진 후보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10곳의 선거구 가운데 목포시와 순천·광양·구례·곡성갑을 제외한 8곳의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목포

민주당 후보 우세 국면 속
민생당·무소속 치열한 경쟁

(김원이)와 순천·광양·구례·곡성갑(소병철)도 민주당 후보들이 점차 지지를 격차를 벌리는 추세여서 최종 승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지역 민심의 호평이 높아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민생당과 무소속 후보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져 광주·전남 씩씩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21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정치권의 세력교체와 세대교체가 현실화될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반면 민생당에서는 광주·전남 곳곳에서 격전이 펼쳐지면서 선거 막판 역전 드라마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광주에서는 동남갑(장병완), 서구를(전정배)이 접전 양상이며 북구를(최경환), 광산갑(김동철) 등에서도 민생당 후보들이 맹추격을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에서는 목포(박지원)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흥·보성·장흥·강

진(황주홍), 해남·완도·진도(윤영일) 등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생당 측에서는 민주당 경선 잡음에 대한 지역 민심의 역풍이 거세고, 검증된 일꾼론을 기반으로 점차 민생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어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 후보들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북구의 김경진 후보는 탄탄한 지역 기반을 토대로 우세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며, 순천·광양·구례·곡성갑의 노관규 후보 측도 민주당의 전략공천과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지역 민심의 반감이 폭발하면서 전반적 판세가 유리한 흐름을 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광주·전남에 8명의 후보를 냈지만 대부분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간판으로 이정현 의원(순천)이 승리를 일궈내는 드라마를 썼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의 깃발’을 쫓아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정의당도 광주 6명, 전남 4명 등 10명의 후보를 냈지만 뚜렷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찾지 못한 실정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4·15 총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각 당 출정식 ... 후보들, 코로나19에 대면접촉 자제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된다. 광주와 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출마한 87명의 여야 및 무소속 후보들은 일제히 치열한 경쟁에 들어갔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후보 간 대결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들의 돌풍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등은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선대위 출범식과 출정식 등을 개최하고 세 물이에 나선다. 민주당은 2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출마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연다. 민생당 광주시당도 같은 날 5·18 묘지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민중당 광주시당은 5·18 기념문화센터 앞에서 각각 출범식과 출정식을 연다.

각 정당은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른 정당(비례)특표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시작되더라도 코

나 19 확산 우려에 따라 후보들은 대면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SNS 등 온라인 선거 운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많은 사람을 동원해 학생기를 들고, 울통하는 방식의 유세는 자제하고, 홍보영상물 통한 ‘무음 유세’ ‘나 홀로 유세’ ‘1인 거리 홍보 운동’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유세차에서 흘러 나오는 로고송에 맞춰 선거운동원들이 울통을 하는 ‘떠들석한 유세’는 쉽게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보자들은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찌거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촉촉하게 레이어드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렉스그립스토퍼 및 전극 배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플렉스그립스토퍼: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